****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 ㅣ Office : 02)560-4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두산건설 We’ve 챔피언십 3R 홍정민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두산건설 We’ve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4월 3일(목) ~ 4월 6일(일) |
| 3 | 장 소 | 동래베네스트 [아웃(OUT) / 인(IN)코스] |
| 4 | 주 최 | 두산건설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2억 원 (우승상금 2억 1천6백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79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황유민, 박보겸, 신지애, 박현경, 박지영, 마다솜, 이예원, 배소현, 고지우  이가영, 김수지, 리슈잉, 유현조, 전예성, 김우정, 송은아, 박지혜3, 조이안  황민정, 짜라위 분짠, 임희정, 박결, 유효주, 이율린, 박혜준, 유현주, 김민솔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홍정민 3R 4언더파 68타, 중간합계 11언더파 205타 단독 선두(경기 종료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50>

**경기 소감**

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초반에 아이언 거리가 덜 나가 거리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.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, 리커버리가 1,2라운드보다 잘 돼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.

**오늘 제일 잘 된 것은?**

오늘 바람 많이 불어 위기가 많았는데 리커버리 잘 한 것이 큰 이유인 것 같다. 어제, 그제보다 리커버리가 좋아서 타수 유지할 수 있었다.

**겨울 전지훈련?**

포르투갈로 전지훈련 다녀왔다. 4년째 가고 있다. 기온이 적당해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을 수 있고, 바람 부는 코스라 바람에 대비하는 연습할 겸 4년째 가고 있다.

**전지훈련 효과?**

항상 갈 때마다 쇼트게임 위주로 연습하자고 다짐하고 가는데, 연습때는 되는 부분이 대회 때 적용이 안돼서 이번에는 멘탈적인 부분도 같이 연습해보자는 생각이었다. 기술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.

**해외 투어에 도전했었는데?**

우선 해외 투어에 대한 꿈이 항상 있었고, 23년도에 도전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그 큐스쿨에서 생각보다 성적을 내지 못했고, 조금 더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나 생각했다. 유럽투어는 경험하러 갔었는데, 더 많은 대회를 나가고 싶었지만 동선이 많이 힘들기도 했고, 실력을 쌓고 가자는 의미가 가장 컸던 것 같다.

**해외 투어에서 어떤 것을 배웠나?**

해외 선수들 스윙이나 코스 매니지먼트가 정말 자유분방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역시 골프는 정답이 없구나 싶었다. 그리고 코스마다 잔디도 많이 달라서 한국에서 접한 잔디가 다가 아니겠구나를 느끼고 왔다.

**여기도 잔디가 다른 골프장과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, 그 경험이 도움이 된 것인지?**

이 곳 잔디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. 페어웨이는 양잔디랑 토종잔디랑 섞여 있고 러프는 완전히 토종잔디라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다.

**해외 투어 다시 도전할 생각?**

꿈은 가지고 있는데 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계획 못하고 있다. 아무래도 우승이 조금 있어야 검증받았다는 생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.

**내일?**

선두로 마지막 라운드 맞는 것이 2년만인 거 같은데, 오랜만이라 긴장될 것 같지만 차분하게 마지막 라운드 하겠다. 날씨는 맑다고 들어서 오늘보다는 편할 것 같다. 예원이와 같이 라운드하면서 매치 생각도 났지만, 이번 대회는 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같이 잘 풀어나가자는 편한 느낌으로 치고 싶다.

**공략 집중할 것?**

선두권에 있을 때 여유가 없으면 계획했던 것이 실행이 안되더라. 기술적인 것 보다는 여유가 중요할 것 같다.